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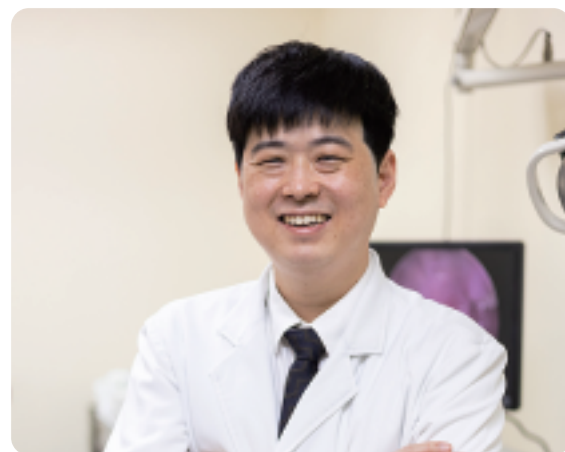
그 길이 빠른 길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그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 성전스님 -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김보해 교수, ‘의료기기 안전관리 유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표창’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김보해 교수가 지난 5월 29일 개최된 ‘제17회 의료기기의 날 유공자 정부 포상식’에서 ‘의료기기 안전관리 유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보해 교수는 기관 내 의료기기 안전 정보 모니터링센터에서 의료기기 안정성 평가 업적과 중환자실 내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2024년 협력 병·의원 초청 세미나 성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6월 19일 협력 병·의원을 대상으로 ‘골관절염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수술과 약물 및 재활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골관절염의 특성상 종합병원과 병의원 간의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권범선 병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골관절염의 약물치료(류마티스내과 이광훈 교수) △어깨통증 환자의 수술적 치료(정형외과 박주현 교수) △허리통증-척추 관절염과 감별진단(정형외과 최준영 교수) △골관절염의 비약물적 치료(재활의학과 서민수 교수)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권범선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협력 병·의원과 지속적인 교류 및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에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실천회 회주 화정 명사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발전기금 1억 원 전달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실천회 회주 화정스님은 지난 6월 11일 용성조사 탄신 161주년을 기념하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스님, 채석래 의료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고기환 사무국장 등 교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주 화정스님은 “많은 불자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자비와 사랑을 말하지만, 의료진 여러분은 이를 실천하는 분들이다”고 참석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육신이 아픈 사람이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비회사 사무량심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치유하는 의료진을 보면서 의학 발전을 위한 보시가 곧 조사의 유훈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후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실천회는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 불교의 중흥조인 용성스님의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명법사 신도들을 중심으로 창립되었으며 각종 구호 활동, 장학사업, 사회 복지 사업 등에 전념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전등사 이주민 문화축제에서 한방의료봉사 펼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6월 9일 전등사에서 열린 이주민 문화 축제에 참여하여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 봉사는 의료 혜택이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동일 한방병원장을 비롯해 한의사와 간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료 상담, 침 치료, 혈압 및 당뇨 측정 등의 다양한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